

勞 動 經 濟 論 集
 第27卷(2), 2004. 8, pp. 1~2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성지미** · 안주엽***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자영업, 가교일자리, 경기변동, 한국노동패널

투고일: 2004년 2월 17일, 심사일: 2004년 2월 19일, 심사완료일: 2004년 4월 6일

*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유의한 논평을 주신 공주대학교의 김우영 교수와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여전히 남은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jsung13@kut.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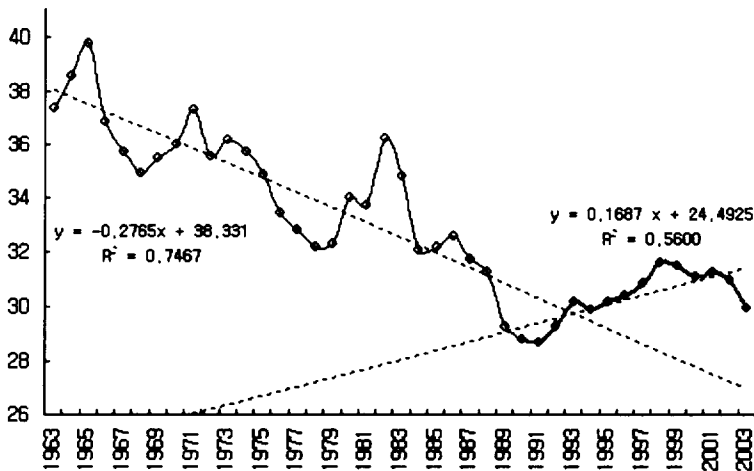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jyahn@kdi.re.kr)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 비농가부문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림 1]에서 보듯, 1990년을 전후하여 서로 다른 두 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첫 단계는 발전도상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으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발전 단계 초기에 공식부문 노동수요가 이를 흡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여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도시 비공식부문으로 불리는 생계형 자영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 이후 산업화와 함께 공식부문 노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은 연간 0.28%포인트씩 줄어들어 1990년에는 28.8%까지 하락하였다. 산업화가 마무리된 1990년대 초 자영업 하락추세는 반전하여, 경기에 따른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0.17%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자영업 비중 추이: 비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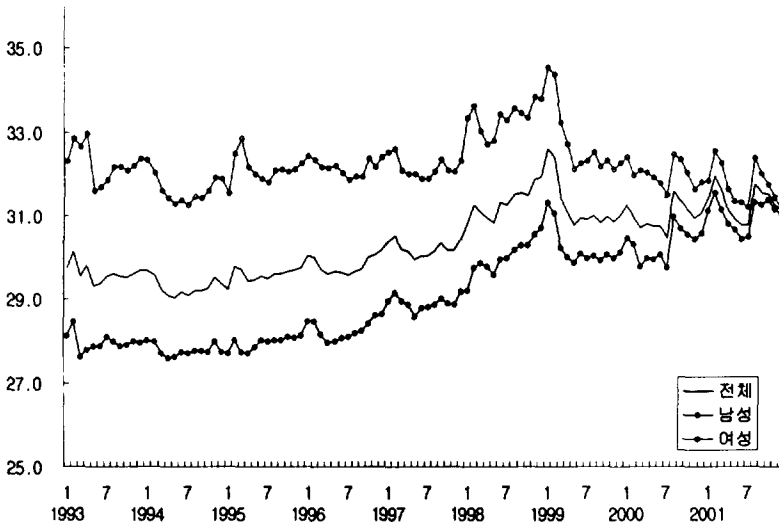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월.

(그림 2)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 (비농 전산업)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월.

1990년대 자영업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전반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경제위기 직후 남녀 모두에서 자영업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였다. 셋째, 여성 자영업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남성 자영업 비중이 급상승하여 자영업 비중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자영업이, 특히 경제위기와 같이 급속히 고용이 줄어들 때 중요한 노동공급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상대적으로 여성에 국한된 자영업이 남성에게 크게 확산되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비중 변화를 자영업 세부 종사상지위에 따라 살펴보자.¹⁾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3.0~57.3%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으나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 하락추세(매년 0.57%포인트)를 유지하여 2003년에는 21.9% 낮아졌다. 반면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는 8.9%에 불과하였으나 상승추세(매년 0.55%포인트)를 유지하여 2003년에는 21.1%까지

1)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자영자는 1980년 이후 자료에서 구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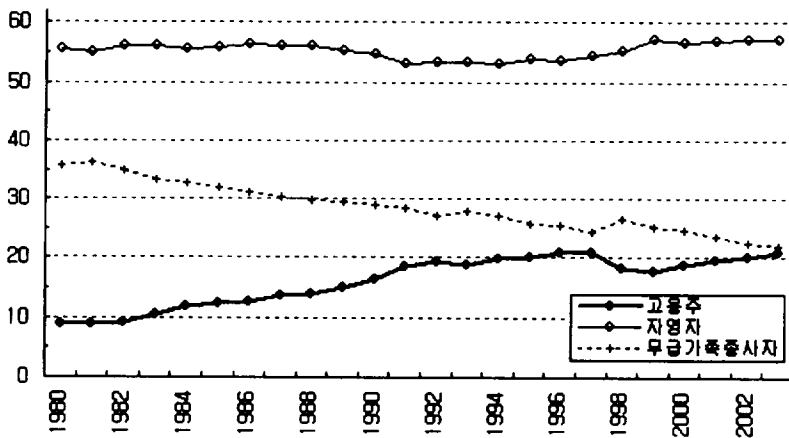
상승하였다.

그림들에서 나타난 특징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자영업(이제부터는 오해가 없는 한 비임금근로를 '자영업'이라 한다.)이 갖는 역할과 특성, 그리고 자영업 선택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고용 가능성이 낮아 노동시장에서 수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선택함으로써 비공식부문(농업부문의 자영업은 제외하고)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곧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소극적인 대안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 평균임금보다 낮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자영업은 이와는 상이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보다는 기업이 정신을 가진 고용주 또는 자영자에 비교우위를 갖는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교일자리란 노동시장 퇴장과정에서 풀타임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파트타임근로로 이행한 후 향후에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임금근로에서 바로 은퇴(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은퇴, full retirement)하기보다는 자영업으로 이행한 후 최종 은퇴하는 과정을 뜻한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제공하는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은 아직

[그림 3] 자영업의 종사상지위별 구성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월.

은퇴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 경제적인 준비를 위한 시간과 소득원을 제공하는 한편, 여가시간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는 하나의 사건(event)이 아니라 과정(process)이라는 인식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바 은퇴 시기에 접어든 고령층에서 근로자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OECD 회원국 통계는 근로자들이 은퇴에 앞서 소위 “가교일자리(bridge job)”라는 단계를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이 갖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노동패널 제1차 조사~제5차 조사에서 각 조사시점에 자영업을 경험한 근로자의 전후에 나타나는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자영업이 노동시장 퇴장가교직(노동시장 퇴장과정에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후 퇴장)이나 진입가교직(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후 임금근로로 이행)으로 역할을 하는 비중과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에서는 경기변동이 이러한 자영업의 가교직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 자영업 연구에 나타나는 경향과 가교직 일자리에 대한 외국문헌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조사 개인표본의 제5차 조사까지 나타난 취업유형을 살펴본 후 자영업을 가교직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노동시장 진입가교직과 퇴장가교직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국내 자영업 연구 경향

1. 자영업 선택에 관한 연구

최근 자영업 연구는, 미시적 관점 또는 노동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류재우·최호영(1999)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5년~1998년)를 이용하여 1990년 이후 자영업 비중 증가를 자영업 종사자의 전반적인 특성 및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자영업주(자영자와 고용주를 포함)를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류재우·

최호영(2000)은 다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자영업 비중 증가를 자영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선택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안주엽(2000)은 「한국노동패널(KLIPS)」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김우영(2000)은 근로자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두 대안의 선택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종사상지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금재호·조준모(2000)는 노동시장 진입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로 표본을 구분하여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비교하였다. 안주엽(2000)은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가 재취업과정에서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성별로 분리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한편, 성지미(2002)는 선행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여성의 자영업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 표본만을 대상으로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은 여성 자영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자영업의 선택요인 및 지속기간 등 다양한 측면을 여성을 중심으로 또는 남성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지미·안주엽(2002)은 자영업 소득과 자영업 연간 매출액으로 표현되는 자영업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안주엽·성지미(2003)는 자영업의 생성 및 소멸을, 즉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전병유(2003)는 자영업 선택에서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노동패널(KLIPS)」 제1차~제4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통하여,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사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자영업과 가교직에 관한 연구

자영업이 가교직의 역할을 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자영업을 직업전환과정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영업을 완전한 은퇴 이전에 임금근로와 은퇴간 가교일자리로 선택하는 것이다. 은퇴 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영업이 은퇴 이전에 가교일자리로 선택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uhm(1990)은 가교일자리(bridge jobs)와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부분은퇴²⁾라는 용어는 완전은퇴(full retirement)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며, Quinn(2000)

에서는 은퇴로의 가교직에 풀타임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의 전환과,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포함시키고 있다.

Ruhm(1990)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career job)를 그만두고 가교일자리로 노동시장에서 고용되는 경우 주된 일자리와는 상이한 직종이나 업종에서 일하는 경향이 높으며, 가교일자리의 특성은 성, 영구소득 및 주된 일자리에서 획득한 연금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Quinn(2000)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 풀타임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 이행하는 가교일자리를 고찰한 후,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의 유연성을 통하여 자영업은 고령자들에게 점진적 은퇴라는 대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Bregger(1996)는 연령과 자영업 비중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요인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창업 및 사업체 경영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보다 잘 구비되는 한편, 연령 증가와 함께 임금근로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여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내 연구 중 자영업을 직업전환과정에서 선택하는 노동공급의 한 방안으로 자영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 류재우·최호영(1999)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1997년 10월~1998년 9월)를 이용한 이행확률 분석을 통하여 자영업주가 사업에 실패할 확률은 높지만 상용직보다는 다른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높고, 자영업 신규진입자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 중 경쟁력이 낮은 임시·일용근로자들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병유(2003)는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사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류재우·최호영(1999)에서 보듯,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자영업 비중 상승은 고용주가 자영자로 전환하였거나 새로이 창출된 자영업 취업은 임금근로에서 실직한 비교우위가 없는 근로자가 창업한 것이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2) 부분은퇴에 대한 연구로는 Gusteman & Steinmeier (1984), Honig & Hanoch (1985) 등이 있다.

Ⅲ. 「한국노동패널」과 자영업

1.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제5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직전 일자리의 특성, 15세 이후의 취업력(work history)에 관한 회고적 설문을 포함하는 직업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2차 조사(1999년)부터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류(유형 1~8까지)하고 각 조사시점 사이에 발생하거나 소멸한 일자리를 추적하고 있다. 제3차 조사(200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데 비하여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제4차 조사(2001년)에서, 비록 부가조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이 상당히 보강되어 현 사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업종, 사업체명, 사업체 소재지, 무급가족종사자 수 및 사업체 규모 등), 창업 당시의 현황(사업체 시작시점, 창업 동기, 유산상속 여부 및 상속자, 사업체 창립 시점, 사업체 시작 당시 자본금, 자본금 조달방법 및 구성 등), 창업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창업훈련(7종) 이수 여부,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현재 당면한 자영업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영업 근로의 규칙성 및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또는 그만둘 당시)의 월평균 자영업소득 및 연간 매출액,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추가 되는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 자영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고용형태의 변화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근로에서 은퇴 이전까지 어떠한 직업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제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직업력을 추적하고자 5년간의 조사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을 표본으로 하였다. 제1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회고적인 직업력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2. 패널표본 취업유형

제1차년도~제5차년도 조사시점에 나타난 노동력 상태에 따라, 취업유형을 크게 취업 경험자와 취업 무경험자로 분류하고, 취업 경험자는 다시 자영업 무경험자와 자영업 경험자로 구분한다.³⁾ 자영업 무경험자는 임금근로형(임금근로만 관찰되는 경우)과 임금-미취업형(임금근로와 미취업을 오가는 유형)으로 나뉘고, 자영업 경험자는 자영업형(자영업만 관찰되는 경우), 임금근로 대체형(임금근로와 자영업을 오가는 경우), 미취업 대체형(미취업과 자영업을 오가는 경우), 혼재형(임금근로, 자영업, 미취업이 모두 관찰되는 경우)으로 나뉜다.

<표 1>은 제1차년도 개인표본 13,738명에 대한 취업유형 분포를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5년간 계속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개인은 4,743명으로 총 표본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을 경험한 8,995명 중 임금근로만 계속한 비중은 29.6%,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중은 18.1%, 임금근로와 미취업을 경험한 비중은 32.9%, 자영업과 미취업을 경험한 비중은 8.9%, 임금근로와 자영업을 경험한 비중은 6.4%로 나타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근로형, 자영업형, 또는 임금근로 대체형의 비중이 높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미취업을 경험한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유형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29세 연령층에서는 임금근로와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중이 5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중이 28.5%인 반면 자영업을 경험한 비중은 5%를 넘지 않고 있다. 30~49세 연령층에서는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중과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중이 각각 35.7%와 22.3%로 젊은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임금근로와 미취업을 함께 경험하는 비중은 20.5%로 15~29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50~64세 연령층에서는 30~49세 연령층에 비해 임금근로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자영업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즉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중이 29.1%로 가장 높고, 임금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중은 26.7%,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중은 20.7%,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중은 14.5%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 임금근로에만 종사한 비중은 4.5%에 불과한 반면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중은 32.5%로 나타난다.

취업유형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형이 차지하는

3) 제1차년도 조사 이후 표본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직전까지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한다.

〈표 1〉 KLIPS 표본의 취업유형 분포

(단위: 명, %)

	전체	취업경험		자영업 경험 없음		자영업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임금 근로만	임금과 미취업	자영업만	자영업 미취업	임금과 자영업	혼재형
전체	13,738	4,743	8,995	29.6	32.9	18.1	8.9	6.4	4.1
성별									
여성	6,950	2,995	3,955	21.3	42.1	16.1	11.9	3.8	4.7
남성	6,788	1,748	5,040	36.2	25.6	19.6	6.6	8.4	3.6
연령대									
15~29세	4,258	1,758	2,500	28.5	57.1	2.8	4.3	3.8	3.4
30~49세	5,411	981	4,430	35.7	20.5	22.3	8.1	8.4	5.0
50~64세	2,321	812	1,509	20.7	26.7	29.1	14.5	5.6	3.4
65세 이상	1,136	868	268	4.5	23.9	32.5	34.0	3.7	1.5
교육수준									
고졸미만	5,525	2,511	3,014	18.3	35.5	24.4	12.5	5.7	3.6
고졸	4,530	1,142	3,388	31.8	29.2	18.0	8.7	7.3	5.0
대졸미만	1,296	614	682	17.0	68.6	4.0	5.6	1.9	2.9
대졸	2,133	444	1,689	46.3	22.8	14.0	5.4	7.6	3.8
대학원	254	32	222	62.2	19.4	6.8	2.7	6.8	2.3

주: 제1~5년도 각 조사 시점 당시 기준. 취업 경험자 중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자영업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고졸 미만에서 임금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중이 35.5%로 가장 높고, 자영업만 경험한 비중은 24.4%,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중은 18.3%이다. 고졸의 경우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중이 31.8%로 가장 높고, 임금근로와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중은 29.2%, 자영업만 경험한 비중은 18.0%로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중이 고졸 미만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중은 대졸집단에서 더 높아져 46.3%이고 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는 62.2%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만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특징적인 점은 임금과 자영업을 함께 한 비중인데 대졸집단의 경우 7.6%로 이는 다른 학력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 높은 수치이며 대학원 졸업집단의 경우에도 6.8%로 고졸집단의 비중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중이 6.8%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는 자영업을 경험한 3,372명의 표본(전체 표본 13,738명 중, 24.5%, 전체 취업자 중 37.5%)에 초점을 맞춘 취업유형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경험자 중 자영업

만 계속한 비중이 48.2%,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한 비중이 23.9%, 임금근로와 자영업을 함께 한 비중이 17.1%로 나타나, 자영업만 계속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중이, 남성은 임금과 자영업을 함께 경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전체 취업 경험자 중 자영업 경험자 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15세~29세 연령층에서는 14.4%에 불과하나 연령에 따라 높아져, 30세~49세 연령층에서는 43.8%, 50~64세 연령층에서는 52.6%로 나타나며,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71.6%에 이른다. 자영업 경험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15~29세 연령층에서는 자영업만 경험한 자영업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로 불과하며, 자영업과 미취업, 자영업과 임금근로를 함께 한 비중이 각각 30.1%, 26.7%로 파악된다. 반면 30~49세 연령층에서는 자영업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50.9%로 높아지는 반면, 자영업과 임금근로를 함께 한 비중은 19.1%,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한 비중은 18.6%로 낮아진다. 50~64세 연령층에서는 자영업형이 55.3%로 더욱 높아지는 한편,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한 비중 역시 27.6%로 상승하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47.4%에 이른다.

〈표 2〉 자영업 경험자 유형별 분포

(단위: 명, %)

	전체	자영업형	자영업 미취업	임금과 자영업	혼재
전체	3,372 (24.5) [37.5]	48.2	23.9	17.1	10.9
성별					
여성	1,446 (20.8) [36.6]	44.1	32.6	10.4	12.8
남성	1,926 (28.4) [38.2]	51.2	17.3	22.1	9.4
연령대					
15~29세	359 (8.4) [14.4]	19.2	30.1	26.7	24.0
30~49세	1,940 (35.9) [43.8]	50.9	18.6	19.1	11.4
50~64세	794 (34.2) [52.6]	55.3	27.6	10.7	6.4
65세 이상	192 (16.9) [71.6]	45.3	47.4	5.2	2.1
교육수준					
고졸미만	1,392 (25.2) [46.2]	52.9	27.0	12.4	7.7
고졸	1,319 (29.1) [38.9]	46.2	22.3	18.7	12.9
대졸미만	98 (7.6) [14.4]	27.6	38.8	13.3	20.4
대졸	522 (24.5) [30.9]	45.4	17.4	24.7	12.5
대학원	41 (16.1) [18.5]	36.6	14.6	36.6	12.2

주: 제1~5년도 각 조사 시점 당시 기준. () 안의 숫자는 전체 표본 중 자영업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중. [] 안의 숫자는 취업 경험자 중 자영업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3. 자영업은 가교직인가?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한다고 상정한다면, 두 가지 개념이 설정 가능하다. 첫째,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임금근로로 취업하기 위한 가교직으로서 자영업('진입가교직'이라 하자)으로, 이 경우 이행과정은

미취업 → 자영업 → 임금근로

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 퇴장과정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교직으로서 자영업('퇴장가교직'이라 하자)으로, 이 경우 이행과정은

임금근로 → 자영업 → 미취업

으로 나타날 것이다.^{4) 5)}

한국노동패널이 제5차년도 조사 자료까지 제공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짧은 패널자료이며, 15세 이후 취업력이 이를 보완하고는 있으나 회고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당시 변화요인에 대한 정보파악 불가능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1차년도 조사에 나타난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만 추가로 활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자영업 경험자는 4,428명(13,738명 중 32.2%에 해당)으로 조사시점만 고려한 경우보다 1,056명 늘어나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표 3>은 자영업 경험 표본을 대상으로, 진입가교직에서는 미취업 → 자영업 이행과정 경험 여부와 그 이후 변화, 퇴장가교직에서는 임금근로 → 자영업 이행과정 경험 여부와 그 이후 변화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경험이 있는 4,428명 중 1,492명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고, 2,532명은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4) 진입가교직은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청년층이나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중년여성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퇴장가교직은 임금근로로 장기간 근로하다가 정년,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고령자에게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계층을 구분-예를 들면 20대에 대해서는 진입가교직, 고령층에 대해서는 퇴장가교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표 4>에서 보듯, 특히 후자의 경우에 55세 이상은 표본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분석에 용이하지 않다. 표본규모가 큰 자료를 이용한 유사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이행과정은 조사시점보다는 spell 단위로 파악하여 경제활동상태보다는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조사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임금근로→미취업→자영업→자영업이면, spell 단위로는 임금근로→미취업→자영업으로 전환한다.

<표 3> 자영업 경험자 중 가교직 여부 분포

(단위: 명, %)

	전 체	미취업 → 자영업 경험				
		해당 없음	해당함. 그 이후는?			
			전체	진입가교직	자영업지속	미취업대체
전 체	4,428	1,896	2,532	334	1,726	472
임금근로→자영업 경험						
해당없음	2,936	1,647	1,289	98	906	285
해당함. 그 이후는?	1,492	249	1,243	236	820	187
임금근로복귀	255	38	217	217	0	0
자영업지속	1,027	192	835	16	818	1
노동시장 퇴장가교직	210	19	191	3	2	186

주: 제1차년도 조사에서 이전 직장파 제1~5년도 조사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spell 단위로 임금근로, 자영업, 미취업의 상태변화를 고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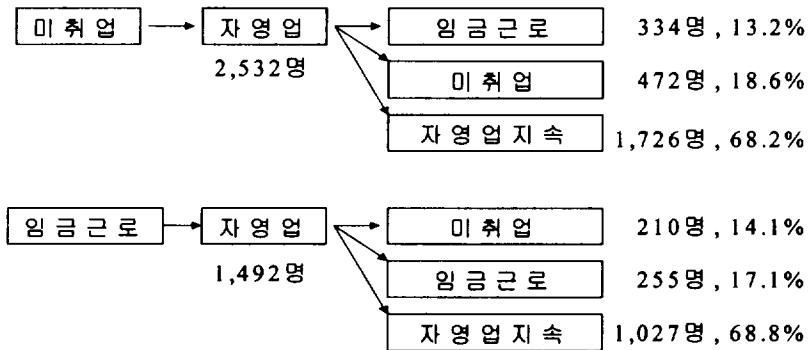
전환한 경험이 있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1,492명 중 1,027명은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255명은 임금근로로 다시 복귀하였고, 210명은 미취업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일부 퇴장가교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2,532명 중 1,726명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472명은 미취업으로 복귀하였으며, 334명은 임금근로로 이행하여 일부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2,532명 중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68.2%, 임금근로로 복귀한 경우는 13.2%, 미취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18.6%로 파악된다.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자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임금근로나 미취업으로 다시 전환할 것인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임금근로로 전환한 경우를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을 경험한 1,492명 중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68.8%, 임금근로로 복귀한 경우는 17.1%, 미취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14.1%로 파악된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같이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자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임금근로나 미취업으로 다시 전환할 것인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하고 다시 미취업으로 이행한 경우를 자영업이 퇴장가교직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다음 장 실증분석에서는 '미취업 → 자영업' 이행과정을 겪은 후 미취업(472명)이나 임금근로(334명)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화한 806명(자영업 지속을 포함하면 2,532명)을 대상으로 진입가교직을 결정하는 요인을, '임금근로 → 자영업' 이행과정을 겪은 후 임금근로로 복귀하거나(255명) 미취업으로 이행하는(210명) 465명(자영업 지속을 포함하면 1,492명)을 대상으로 퇴장가교직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다.

(그림 4) 가교직으로서 자영업 여부



IV. 가교직으로서 자영업 결정요인

1. 표본과 기초분석

<표 4>와 <표 5>에는 자영업 경험자 4,428명 중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자영업 경험이 있는 표본과,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자영업 경험이 있는 표본의 특성이 성별·연령대별·교육수준별 특성에 따라 제시하고, 이 중 자영업이 진입가교직 또는 퇴장가교직으로 역할하는 비중(자영업을 지속하여 현재까지 자영업의 역할을 확정할 수 없는 표본은 계산에서 제외)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진입가교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1%, 퇴장가교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을 진입가교직으로 활용하는 연령대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으로 역할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표 4〉 노동시장 진입가교직 비중

(단위: 명, %)

	자영업 경험	미취업→자영업 경험				
		전 체	자영업 지속	미취업 복귀	노동시장 진입가교직	비중
전 체	4,428	2,532	1,726	472	334	41.4
성별						
여성	1,999	1,166	759	287	120	29.5
남성	2,429	1,366	967	185	214	53.6
연령대						
15~29세	404	297	162	61	74	54.8
30~49세	2,287	1,469	1,037	231	201	46.5
50~64세	1,079	550	399	105	46	30.5
65세 이상	553	153	80	68	5	6.8
교육수준						
고졸미만	2,041	1,032	697	220	115	34.3
고졸	1,611	1,007	696	172	139	44.7
대졸미만	120	68	40	16	12	42.9
대졸	612	391	270	60	61	50.4
대학원	44	34	23	4	7	63.6

주: 미취업 복귀나 노동시장 진입가교직 합에 대비하여 진입가교직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표 5〉 노동시장 퇴장가교직 비중

(단위: 명, %)

	자영업 경험	임금근로→자영업 경험				
		전 체	자영업 지속	임금근로 복귀	노동시장 퇴장가교직	비중
전 체	4,428	1,492	1,027	255	210	45.2
성별						
여성	1,999	481	298	79	104	56.8
남성	2,429	1,011	729	176	106	37.6
연령대						
15~29세	404	186	114	47	25	34.7
30~49세	2,287	1,020	717	166	137	45.2
50~64세	1,079	227	152	35	40	53.3
65세 이상	553	35	23	4	8	66.7
교육수준						
고졸미만	2,041	451	304	82	65	44.2
고졸	1,611	673	472	109	92	45.8
대졸미만	120	37	26	4	7	63.6
대졸	612	304	206	54	44	44.9
대학원	44	27	19	6	2	25.0

주: 임금근로 복귀나 노동시장 퇴장가교직 합에 대비하여 퇴장가교직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비중이, 여성은 자영업을 퇴장가교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 반면 퇴장가교직으로 역할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으로 역할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퇴장가교직으로 역할 하는 비중은 고졸 미만, 고졸, 대졸에서는 44~45%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대학원졸에서는 25%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2. 분석모형

이미 언급하였듯, 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결정하는 실증분석에서는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는 '미취업→자영업' 이행과정을 거친 후 임금근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취업으로 복귀할 것인가 여부를, 노동시장 퇴장과정에서는 '임금근로→자영업' 이행과정을 거친 후 임금근로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미취업으로 이행할 것인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⁶⁾⁷⁾ 따라서 각각 자영업이 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 종속변수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한다. 종속변수가 이진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

$$\begin{aligned} \text{모형 (1)} \quad y^* &= X\beta + \epsilon, y = 1(\text{자영업이 가교직}), \\ &y = 0(\text{가교직이 아닌 경우, 지속표본 제외})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모형 (2)} \quad y^* &= X\beta + \epsilon, y = 1(\text{자영업이 가교직}), \\ &y = 0(\text{가교직이 아닌 경우, 지속표본 포함}) \end{aligned}$$

으로 표현되며, y^*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는 관찰되어진 종속변수, X 는 설명변수 벡터, β 는 이에 상응하는 추정될 계수 벡터, ϵ 은 오차항, $1(\cdot)$ 는 () 안의 조건이 사실이며(true) 1, 거짓이면(false) 0의 값을 갖는 지수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오차항 ϵ 가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이 된다.⁸⁾

6) 모형 (1)에서는 최종 관찰시점까지 자영업 상태를 지속하는 표본을 실증분석에서 제외하고, 모형 (2)에서는 가교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포함한다.

7) 자영업 지속을 하나의 상태로 추가시키면, 세 가지 경로가 존재하여,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begin{aligned} y^* &= X\beta + \epsilon, y = 0(\text{자영업 지속}), \\ &y = 1(\text{미취업으로 이행}), y = 2(\text{임금근로로 이행}) \end{aligned}$$

이 된다. 다항로짓모형 추정 결과는 <부표 2>와 <부표 3>에 제시되고 있다.

자영업의 가교직 역할을 결정하는 설명변수로는 연령(만 나이), 남성 가변수, 교육연한으로 표현된 교육수준, 혼인상태(기혼 유배우(준거집단), 기혼 무배우, 미혼), 주관적 건강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변수, 자영업 적자 여부, 자영업 소득, 자영업 종사상지위(자영자(준거집단),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일자리의 규칙성(규칙적, 불규칙적이지만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음(준거집단), 불규칙적이고 계절적 영향을 받음) 여부와 업종 가변수(도소매업(준거집단), 농림어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 현황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과 직무 내용 관련 일자리 만족도 등 주관적 만족도를 사용한다. 설명변수에 대한 정의 및 기초통계량은 <부표 1>에 보여주고 있다.

3. 실증분석

가. 가교직으로서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표 6>과 <표 7>은 자영업이 노동시장 진입가교직으로 또는 퇴장가교직으로 역할하는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연령은 진입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을 낮추는(연령이 10세 높아지면 모형 1에서는 14.8%, 모형 2에서는 3.6% 낮아짐) 반면 퇴장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고(연령 10세 당 모형 1에서는 12.2%, 모형 2에서는 1.8%) 있다.⁹⁾ 다시 말하면,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는 고연령일수록 다시 임금근로로 복귀하기보다는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고연령자에게서 자영업이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반면,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취업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임금근로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자영업이 노동시장 진입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함을 뜻하는 것이다.

-
- 8) 하나의 상태에 존재하는 개인이 현 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상태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편익, 다시 말하면, 기대소득의 비교일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Mover-Stayer model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익명의 심사자의 견해에 감사드린다).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 9) 설명변수의 변화가 $y=1$ 이 되는 확률에 미치는 효과, 즉 $dPr[y=1]/dx$ 를 한계효과라 하는데, 설명변수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면 표본평균에서 측정한 marginal effect이며, 설명변수가 가변수(dummy variable)이면 설명변수 값이 1인 경우와 0인 경우에 구해지는 확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delta effect라 구분한다.

〈표 6〉 노동시장 진입가교직 추정 결과

	모형 1		모형 2	
상수	2.1213 (0.7652)***	0.5057***	2.2314 (0.5019)***	0.3161***
연령/10	-0.6230 (0.0982)***	-0.1485***	-0.2510 (0.0629)***	-0.0356***
남성	1.0743 (0.1872)***	0.2513***	0.5707 (0.1294)***	0.0821***
교육수준	-0.0327 (0.0293)	-0.0078	-0.0117 (0.0181)	-0.0017
미혼	-0.1939 (0.2748)	-0.0454	-0.4250 (0.2084)**	-0.0672*
기혼 무배우	0.6952 (0.3546)*	0.1712*	0.1716 (0.2170)	0.0231
건강불량	-0.9785 (0.3163)***	-0.2069***	-0.4797 (0.1615)***	-0.0764***
자영업적자	-0.1883 (0.3036)	-0.0443	-0.0088 (0.1853)	-0.0012
자영업 소득	0.0418 (0.0664)	0.0100	0.0980 (0.0410)**	0.0139**
경제성장률	-0.0181 (0.0123)	-0.0043	-0.0026 (0.0081)	-0.0004
고용주	0.2567 (0.2346)	0.0622	0.4700 (0.1703)***	0.0607***
무급종사자	-0.2306 (0.2795)	-0.0543	0.1549 (0.1730)	0.0214
규칙적	-0.5720 (0.3871)	-0.1400	-0.2029 (0.2633)	-0.0274
불규칙-계절적	-0.0731 (0.4483)	-0.0173	-0.1108 (0.3071)	-0.0161
생활 불만족	0.4901 (0.1772)***	0.1180***	0.0906 (0.1197)	0.0127
근로시간 불만	-0.3078 (0.3247)	-0.0710	0.1632 (0.1980)	0.0221
직무내용 불만	-0.1884 (0.4022)	-0.0440	-0.4988 (0.2531)**	-0.0815*
표본규모	803		2,515	
-로그likelihood	461.79		1147.39	
모형 적합도	166.82***		125.06***	

주: ()안의 숫자는 표본오차. 이탤릭체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뜻함. 변수의 정의는 <부표 1>을 참조. 업종가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음. 모형 1에서는 자영업이 지속되는 표본이 제외되었으며 모형 2에서는 이를 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제5차년도 자료.

남성일수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퇴장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임금근로로 복귀하고, 미취업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영업을 진입가교직으로 선택할 확률이 8.2% 높고 퇴장가교직으로 선택할 확률은 10.7% 낮다).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장가교직보다는 임금근로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가교직 여부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건강상 문제는 임금근로 복귀 가능성이 낮고 미취업을 택할 확률이 높아 진입가교직에는 부정적인 영향(확률이 7.6% 낮음)을, 퇴장가교직에는 긍정적인 영향(확률이 15.7% 높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그만둘 경우 임금근로보다는 미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진입가교직에는 부정적인 영향(통계적으로 유

〈표 7〉 노동시장 퇴장가교직 추정 결과

	모형 1		모형 2	
상수	-3.7533 (1.0585) ***	-0.9262***	-3.0167 (0.7723) ***	-0.3220***
연령/10	0.4958 (0.1309) ***	0.1223***	0.1685 (0.0950) *	0.0180*
남성	-1.2893 (0.2512) ***	-0.3110***	-0.8842 (0.1880) ***	-0.1069***
교육수준	0.0953 (0.0392) **	0.0235**	0.0581 (0.0274) **	0.0062**
미혼	-0.6410 (0.3846) *	-0.1502*	-0.2216 (0.3190)	-0.0221
기혼 무배우	-0.3726 (0.4810)	-0.0894	-0.2095 (0.3583)	-0.0208
건강불량	1.6308 (0.4495) ***	0.3701***	1.0631 (0.2678) ***	0.1574***
자영업 적자	0.9128 (0.4490) **	0.2241**	0.1586 (0.3129)	0.0176
자영업 소득	0.0798 (0.0921)	0.0197	-0.0637 (0.0622)	-0.0068
경제성장률	-0.0354 (0.0164) **	-0.0087**	-0.0400 (0.0131) ***	-0.0043***
고용주	-0.1800 (0.2698)	-0.0441	-0.2703 (0.2092)	-0.0275
무급종사자	0.4237 (0.4191)	0.1053	-0.0959 (0.2932)	-0.0100
규칙적	0.9225 (0.5749)	0.2118*	0.4471 (0.4875)	0.0425
불규칙-계절적	0.8032 (0.6395)	0.1979	0.5987 (0.5352)	0.0759
생활 불만족	-0.4238 (0.2310) *	-0.1033*	-0.1935 (0.1789)	-0.0200
근로시간 불만	0.3397 (0.3821)	0.0845	0.2008 (0.2594)	0.0228
직무내용 불만	0.2214 (0.4930)	0.0551	0.3366 (0.3493)	0.0403
표본규모	465		1,492	
-로그최우도값	277.94		564.19	
모형 적합도	84.38***		84.10***	

주: ()안의 숫자는 표본오차. 이탤릭체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뜻함. 변수의 정의는 <부표 1>을 참조. 업종가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음. 모형 1에서는 자영업이 지속되는 표본이 제외되었으며 모형 2에서는 이를 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제5차년도 자료.

의하지는 않음)을, 퇴장가교직에는 긍정적인 영향(모형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모형 2에서는 유의하지 않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영업 소득이 1% 늘어나면 진입가교직으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1.4% 높아지는(모형 2) 반면 퇴장가교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영업 세부 종사상지위는 진입가교직이나 퇴장가교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영자에 비해 고용주가 진입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1% 높게 나타난다.

나. 경기변동이 자영업 역할에 미치는 영향

경기변동이 퇴장가교직 또는 진입가교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 상태를 최종 관찰한 시점에서 국민총생산으로 표현한 경제성장률을 경기변동의 지표로 사용하고, 이를 설명변수에 추가시킨 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Ho: 경기변동은 자영업이 가교직으로서 역할하도록 선택하는 데 추가효과가 없다.

Ha: Ho가 맞지 않다.

을 설정한 후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진입가교직에 대해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반면, 퇴장가교직에서는 기각되고 있다. 표에서 보듯, 경제성장률은 진입가교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반면, 퇴장가교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은 낮추고 있다(경제성장률 1%포인트당 0.4%). 즉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는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다음에 미취업으로 이행하기보다는 임금근로로 복귀하거나 자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과정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교일자리로 역할을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역할을 결정짓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후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한다.

첫째,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발생한 도시화는 공식부문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을 생계형 자영업이라는 비공식부문으로 취업토록 하였으며, 경제발전과 함께 이들을 흡수하는 노동수요의 창출에 따라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 하락추세가 상승추세로 반전되었다. 추세를 반전시킨 배경으로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사실과, 여성 자영업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남성

자영업 비중이 상승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을 의미하며, 노동시장 퇴장과정이나 은퇴과정 또는 노동시장 진입과정이나 재진입과정에서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중 약 35%가 제5차 조사까지 취업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취업을 경험한 표본 중 37.5%가 자영업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 중 절반은 지속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로서 자영업이 갖는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 중 약 2/3 이상은 현재까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중 45%는 미취업으로 이행하여 자영업이 노동시장 퇴장과정(고연령층에게는 은퇴과정)에서 가교일자리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 중 역시 2/3는 현재까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중 42%는 임금근로로 이행하여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영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가교직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는 고연령일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 문제가 있을수록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이행하기보다는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은 퇴장가교직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진입가교직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변동 역시 퇴장가교직으로서 자영업 역할 선택에 유의한 추가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나 진입가교직 역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이 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여부는 노동시장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시장 퇴장과정, 특히 은퇴과정에서 자영업의 가교일자리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비하여 정부는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유인하고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패는 해당 근로자가 가진 속성과 노동수요에 의존한다. 무엇보다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숙련이나 기술수준이 낮고 임금수준이 낮았던 임금근로자 중 일부에게는 적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고령근로자는 덜 불만족스러울 것이나 이러한 일자리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이러한 직종은 임금수준이나 직위, 숙련이나 기술 등에서 중간 이상에 속하였고 (특히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

령 이들을 이러한 직종에 취업시킨다 하여도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이들 역시 이러한 단순노무직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은퇴가교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자영업이 갖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영업 창업, 지속, 발전, 운영 등 측면에서 정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2.): 81-108.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2.): 55-80.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권 (1999. 6.): 109-140.
- 류재우·최호영.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권 (2000. 6.): 137-165.
- 문유경·성지미·안주엽.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성지미.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권 1호 (2002. 3.): 161-182.
- 성지미·안주엽.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2권 3호 (2002. 10): 101-136.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3.): 109-132.
- 안주엽·성지미.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6권 2호 (2003. 6): 1-30.
- 전병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권 3호 (2003. 12): 149-179.

- Gustman, Alan, and Steinmeier, Thomas. "Partial Retirement and the Analysis of Retirement Behavi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7 (1984 April):403-415.
- Honig, Marjorie, and Hanoch, Giora. "Partial Retirement as a Separate Mode of Retirement Behavior."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 (1985 Winter): 21-46.
- Quinn, Joseph F. "New Paths to Retirement." Forecasting Retirement Needs and Retirement Wealth. Edited by Mitchell, Olivia S., Hammond, P. Brett and Rappaport Anna 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pp.13-32.
- Ruhm, Christopher J. "Bridge Jobs and Partial Retir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8(4) (1990 October): 482-501.

〈부표 1〉 설명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의 정의	퇴장가교직 여부			진입가교직 여부		
		전 체	퇴장 가교	임금 대체	전 체	미취업	진입 가교
표본수		1,492	210	255	2,515	469	334
연령	마지막 자영업 상태에서 만 나이 (세)	41.32	42.03	39.12	43.80	46.17	38.65
		(9.95)	(10.79)	(10.27)	(11.92)	(14.49)	(10.64)
남성	여성이 준거집단	0.6776	0.5048	0.6902	0.5368	0.3881	0.6407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수료상태를 고려하여 계산된 교육연한	11.45	11.28	11.39	10.35	9.45	11.15
		(3.34)	(3.53)	(3.36)	(4.11)	(4.70)	(3.58)
미혼	기혼 유배우자가 준거집단	0.0965	0.0667	0.1373	0.0926	0.0853	0.1796
기혼 무배우		0.0536	0.0571	0.0627	0.0656	0.0832	0.0629
건강불량	건강상태가 나쁜 편=1	0.0677	0.1333	0.0392	0.1129	0.1855	0.0509
자영업 적자	자영업 소득이 적자인 경우=1	0.1642	0.1952	0.1490	0.1913	0.2196	0.1916
자영업 소득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로그값	3.17	2.59	3.07	2.67	2.08	2.84
		(2.32)	(2.27)	(2.21)	(2.34)	(2.20)	(2.23)
고용주	비용자없는 자영업자가 준거집단	0.2547	0.2000	0.2314	0.2004	0.1215	0.2006
무급종사자		0.1535	0.2238	0.1490	0.2537	0.3433	0.1946
규칙적	일자리 규칙적	0.8432	0.8762	0.8000	0.8505	0.8635	0.8114
불규칙-계절적	일자리 불규칙적, 계절적 영향을 받음	0.1133	0.1000	0.1333	0.1026	0.0938	0.1317
생활 불만족	생활만족도(생활전반): 불만족	0.2916	0.3143	0.3725	0.3082	0.3284	0.3802
근로시간 불만	일자리 만족(근로시간): 아주 불 만족	0.0885	0.1286	0.0784	0.0918	0.0981	0.0719
직무내용 불만	일자리 만족(직무내용): 아주 불 만족	0.0409	0.0714	0.0471	0.0417	0.0661	0.0419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4.50	-6.05	-4.58	-4.62	-4.31	-5.30
		(6.92)	(6.32)	(7.00)	(7.13)	(7.51)	(7.00)
농림어업	도소매업이 준거집단	0.0858	0.0667	0.0824	0.1837	0.2154	0.1347
제조업		0.1475	0.1190	0.1373	0.1264	0.1023	0.1168
음식숙박업		0.1421	0.2095	0.1843	0.1268	0.1684	0.1677
개인사업서비스업		0.1334	0.1333	0.1098	0.1328	0.1194	0.1347
기타서비스업		0.1796	0.1333	0.1961	0.1388	0.0959	0.1707

주: () 안의 숫자는 연속변수에 대한 표준편차. 이행 직전 마지막 자영업 상태에 있을 당시를 기준으로 각 변수에 대한 값을 구함. 관찰 마지막 연도까지 자영업을 지속한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년도~제5차년도 자료.

<부표 2> 노동시장 진입가교직: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미취업으로 복귀	진입가교직	한계효과		
			지속	복귀	진입가교직
상수	-1.7142 (0.5111)***	0.8023 (0.6060)	0.1499*	-0.2641***	0.1142*
연령/10	0.1820 (0.0641)***	-0.5206 (0.0824)***	0.0190*	0.0367***	-0.0557***
남성	-0.4867 (0.1320)***	0.5187 (0.1519)***	0.0192	-0.0807***	0.0615***
교육수준	0.0091 (0.0183)	-0.0181 (0.0232)	0.0003	0.0017	-0.0020
미혼	0.5417 (0.2143)**	0.3050 (0.2037)	-0.0922***	0.0724**	0.0198
기혼 무배우	-0.1002 (0.2209)	0.4959 (0.2748)*	-0.0273	-0.0243	0.0516*
건강불량	0.4483 (0.1635)***	-0.3388 (0.2806)	-0.0288	0.0716***	-0.0428
자영업 적자	-0.0297 (0.1889)	-0.3157 (0.2488)	0.0290	0.0019	-0.0310
자영업 소득	-0.1086 (0.0418)***	-0.0773 (0.0511)	0.0198***	-0.0142**	-0.0056
경제성장률	-0.0009 (0.0082)	-0.0240 (0.0099)**	0.0020	0.0004	-0.0024**
고용주	-0.5154 (0.1722)***	-0.2881 (0.1693)*	0.0875***	-0.0689***	-0.0186
무급종사자	-0.1916 (0.1764)	-0.3566 (0.2338)	0.0526*	-0.0207	-0.0319
규칙적	0.1313 (0.2676)	-0.4559 (0.2811)	0.0202	0.0280	-0.0482*
불규칙-계절적	0.1108 (0.3120)	-0.0486 (0.3220)	-0.0100	0.0170	-0.0071
생활 불만족	-0.0174 (0.1219)	0.4887 (0.1359)***	-0.0370*	-0.0122	0.0492***
근로시간 불만	-0.2374 (0.2010)	-0.4666 (0.2458)*	0.0671*	-0.0251	-0.0420*
직무내용 불만	0.5337 (0.2607)**	0.1760 (0.3321)	-0.0808*	0.0738**	0.0070
표본규모	2,515				
-로그최우도값	1988.93				
모형 적합도	262.97***				

주: ()안의 숫자는 표본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뜻함. 변수의 정의는 <부표 1>을 참조. 업종가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년도~제5차년도 자료.

〈부표 3〉 노동시장 퇴장가교직: 다항로지모형 추정결과

	임금근로로 복귀	퇴장가교직	한계효과		
			지속	복귀	퇴장가교직
상수	1.0926 (0.6687)	-2.3184 (0.7881)***	0.0784	0.1952**	-0.2736***
연령/10	-0.3601 (0.0967)***	0.1044 (0.0968)	0.0325**	-0.0511***	0.0186*
남성	0.2908 (0.1851)	-0.8257 (0.1920)***	0.0393	0.0562**	-0.0955***
교육수준	-0.0258 (0.0264)	0.0547 (0.0279)**	-0.0018	-0.0046	0.0065**
미혼	0.2145 (0.2406)	-0.1580 (0.3245)	-0.0109	0.0323	-0.0215
기혼 무배우	0.3020 (0.3238)	-0.1470 (0.3651)	-0.0220	0.0440	-0.0220
건강불량	-0.3843 (0.3703)	1.0052 (0.2735)***	-0.0444	-0.0725	0.1168***
자영업 적자	-0.8163 (0.3079)***	-0.0204 (0.3212)	0.0964*	-0.1106***	0.0142
자영업 소득	-0.1623 (0.0586)***	-0.0990 (0.0639)	0.0276***	-0.0201***	-0.0075
경제성장률	-0.0117 (0.0109)	-0.0421 (0.0133)***	0.0051***	-0.0007	-0.0043***
고용주	-0.1047 (0.1814)	-0.2858 (0.2116)	0.0374	-0.0085	-0.0289
무급종사자	-0.5179 (0.2974)*	-0.2090 (0.3013)	0.0785	-0.0662*	-0.0123
규칙적	-0.5648 (0.3118)*	0.3302 (0.4944)	0.0362	-0.0834**	0.0472
불규칙-계절적	-0.3094 (0.3586)	0.5366 (0.5431)	-0.0116	-0.0529	0.0645
생활 불만족	0.4549 (0.1597)***	-0.1005 (0.1825)	-0.0438	0.0639***	-0.0201
근로시간 불만	-0.2108 (0.2807)	0.1582 (0.2650)	0.0104	-0.0318	0.0214
직무내용 불만	0.1682 (0.3752)	0.3799 (0.3615)	-0.0531	0.0152	0.0378
표본규모	1,492				
-로그최우도값	1175.35				
모형 적합도	140.90***				

주: ()안의 숫자는 표본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뜻함. 변수의 정의는 <부표 1>을 참조. 업종가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년도~제5차년도 자료.

abstract

Self-employment as Bridge Employment

Jaimie Sung · Joyup Ahn

The share of self-employment shows a downward trend until 1990 and then an upward trend since then. The upward trend is mainly due to more employers and more male self-employed, which implies that self-employ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n alternative form of employmen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self-employment can be a bridge between no work and wage work in the processes entering into or exiting labor market, and if so, what determines the choice of self-employment as a bridg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Wave 1 to Wave 5). Empirical analysis employing the probit model shows that the older, female, the less educated, and persons with bad health are more likely to choose self-employment as a bridge in the exit process and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choose it as a bridge in the entry process. Business cycl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ts role of bridge employment in the exit process but not in the entry process. The result implies that, in the ageing society, labor market policy should consider self-employment as a better alternative than wage work for the aged.

Key words: self-employment, bridge Job, business cycl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